

## 서혜수 SUH, HYESOO

### 학 력

현 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 박사과정 수료  
1993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도자디자인 전공 졸업  
1988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예과 졸업

### 개인전

2012 COM Lines - Ceramic Own Making Lines / 갤러리 예하, 서울  
2011 Strange Attraction - Expressing Rhythmical Wave on Ceramics / 유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1 鑲嵌在白色瓷器上的藍線 중일한경제발전협회 기획초대전 / 중일한경제발전협회 회관, 북경, 중국  
2010 Blue on White Ceramic Art / 갤러리 원, 서울  
2009 Sweet Illusion - Ceramic Phantasm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서울  
2009 Cube in Square / Flag ginza Gallery, 도쿄, 일본  
2008 Movements in Plane / Gallery Ebisubashi, 오사카, 일본  
2007 In Search of the Scent of Ancient Times /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4 Exquisite Life /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3 Sphericity... Cylinder... /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주요 단체전

2012 맥 아트 미술관 개관전 / 맥 아트 미술관  
한국현대도예가회전 - 한국현대도예의 무한 陶展 / 이천세라믹스 창조센터  
2011 CLAY 2011 Today n Tomorrow / 경덕진도자대학 갤러리, 중국  
Some like it haute 2011 / 뉴 칼레도니아 한국문화원, 뉴 칼레도니아  
2010 아시아 현대도예전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한중일 면기교류전 / 갤러리 이도  
녹미전 - 지성과 감성전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009 현대도예가회 한전프라자 갤러리 초대전 / 한전아트프라자  
2008 도자조명디자인국제교류전 / 한전아트프라자  
제42회 한국미술협회전 /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EARTH SYNERGY, An Indo-Korean Contemporary Ceramic Exhibition / Chennai, 인도  
2007 FGD Expo 2007 - The Spirit of Korea / JCC Hall A, 자카르타, 인도  
Across the Pacific - Contemporary Asian Ceramic Art Show / Muckenthaler Cultural Center Downstairs Gallery, 캘리포니아, 미국  
2006 베이징국제디자인엑스포 KIAA / 세계무역센터전시관, 베이징, 중국  
한국현대도예가회 미얀마 초대전 / Traders Hotel, 미얀마  
제40회 한국미술협회전 /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5 제2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 과천 현대미술관  
경기도 세계도자 비엔날레 세계도자 기념품전 / 도자문화센터, 여주  
2004 한국 디자인/공예 문화의 오늘과 내일전 / 료신미술학원, 심양, 중국  
경덕진도자기 1000년 한중 현대 도자 교류전 / 경덕진 도자대학교, 중국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개관 5주년기념초대전 / 오사카국제교류센터, 일본  
2003 한국미를 찾는 도자모임전 /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하와이  
한국 디자인/공예문화의 오늘과 내일전 / 프랑스 한국문화원, 프랑스  
2012-2002 산업도자조형전 / 2012-2001 도림전  
2012-2006 현대도예가회전 / 2009-2004 산업미술가협회전

### 경 력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수원대학교, 상명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경기대학교 강사  
(주)요업개발, 베아띠(주) 제품디자이너

###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52 3F STUDIO CIRCLE  
M, 010 5236 4121 E, sue1004kr@hanmail.net

2012. 12. 19 Wed - 12. 25 Tue

Gallery YEHA T. 02 722 3619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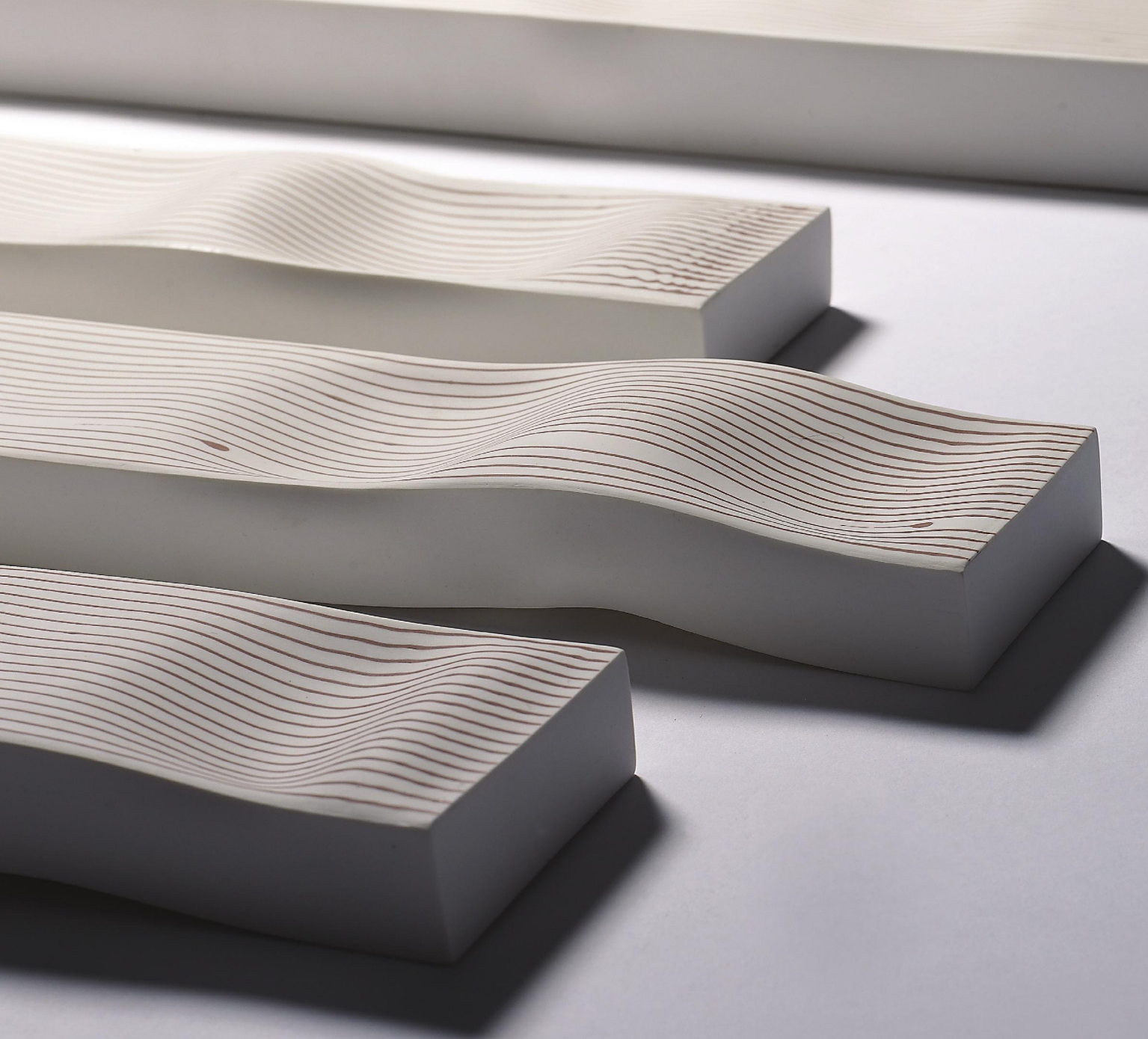
Copyright(c) 2012 Suh, HyeSoo. All Right Reserved. Photo Studio. Munch Brochure. d-paper.net

half brother • Slip casting. Inlay 360 x 360 x 30 mm

# COM Lines

## Ceramic Own Making Lines

Ceramic Exhibition Suh, Hye Soo



## Artist Statement - Ceramic Own Making Lines

Within the standardization and mechanization of mundane paradigm, in admiration for nature from the eyes of modern art, the artist longs to return to nature in the face-paced modern society. The more it strays from being entangled in calculated forms and escapes artificiality, the more it mentally soothes and comforts most people. Correspondingly, this collection is a journey to find natural beauty that is unhindered by mankind while keeping the essence of earth. Rather than the stability of symmetric and orderly composition, the artist pursued to be inspired by the vitality and the dynamic energy of nature's disorderly yet, harmonious arrangements.

Unlike the lines of the previous collections, this collection, through dripping slopes, consists of "the lines that are created by destiny". The lines that have been laid down show the uncovered natural flow as is and produce severance and ties. The lines are driven to the direction of intention but the image of final lines is decided by earth's viscosity and gravity. Wherever they passed by, the lines are created with different thickness and the appearances.

The commitment of molding the most independent and natural lines, was created by the beauty of freedom and fate that resisted against formality. This determination birthed a new sovereign inlay. This is a process of evolving into lines and forms found in natural surroundings through interaction with nature, and also the final destination for the next collections to follow.

급변하는 현대 사회, 기계화와 획일화가 만들어낸 단조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현대 미술이 추구하는 작가들의 예술적 아름다움 속에는 자연을 동경하며 그 모습을 닮아 가고자하는 경향이 숨어 있다. 계산된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인위성을 탈피한 작업 일수록 다수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번 작업은 흙의 본질을 생각하며 인위성을 배제한 자연미를 찾아 가는 것이다. 대칭적이고 질서정연한 안정적 구도 보다는 정지되지 않은 움직임과 역동성을 추구하며, 자연에 내재된 무질서속의 조화로운 배열과 생명력에서 영감을 얻고자 하였다.

흘러내린 슬립이 만들어낸 선의 궤적들은 기존의 작품에서 선보였던 선들과는 달리 '우연성에 의해 창조된 선'으로, 계획된 선이 아닌 자연적 이미지를 연출해 낸다. 길게 놓여진 선들은 끈김과 맛함을 만들어 내며 인위성을 벗어 버린 자연스러운 흐름 그대로를 보여준다. 의도한 곳으로 선의 방향을 몰아가지만 최종적인 선의 이미지는 흙의 점성과 중력에 의해 결정되고, 지나간 위치마다 굵기와 생김새도 다른 선을 만들어 낸다.

선을 최대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놓아두고자 했던 조형의지는 형식을 거부한 자유분방함과 우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고 새로운 상감을 탄생시켰다. 이는 자연과 소통하며 자연에 가까운 선과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차후 이어질 작업에 대한 지향점이기도 하다.

